

문제 1

1. 방향성은 좋으나, 공감의 '정의'에 따르면 공감은 상황에 대한 공감과 감정에 대한 공감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아이히만은 두 공감 모두 실패, 화자는 두 공감 모두 성공으로 더 구체적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2. 또한 아킬레우스의 공감을 애매한 '부분적 공감'과 같은 서술로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뤼카온의 감정에 대한 공감은 실패하지만, 그의 죽는 상황에 대한 공감은 성공했다는 정의에 따른 명확한 비교를 통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서술되지 않아 방향성은 옳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며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사용하지 않은 답안입니다.

문제 2

1. 주체성과, 상상이라는 개념으로 공감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결론은 좋습니다. 하지만, 제시문 (다)의 아킬레우스는 주체성이 있고 상상의 모습도 일부 존재한다고 봐야합니다. 아킬레우스가 주체성이 없다고 서술하는 것은 논지에 끼워 맞추기 위해 제시문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잘못된 해석으로 논리적 오류라고 보여집니다.

2. 이 때는 아킬레우스가 이중적 공감을 하게 되므로 상상 또한 존재는 하지만, 왜 이렇게 비탄에 빠져 있냐는 말을 통해 죽음을 앞둔 뤼카온이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은 온전하게 상상하지 못함을 제시하는 편이 오히려 제시문에 합당한 근거서술이 될 것입니다.

3. 전체적으로 제시문에 기반하여 답을 서술하려는 노력은 좋게 평가됩니다. 다만 (다)에서 자신이 세워둔 결론에 부합하지 않아 제시문의 내용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논리적 오류는 큰 감점 요소이니 주의하세요 :)